배추 40%·양배추 2배…껑충 뛴 채소값 내달엔 잡힐까

농식품부 "배추·대파 이달말, 양배추·무 가격 다음달 안정"
"당근·양배추 할당관세 적용·호우 피해 농가 지원 늘릴 것"

정부가 치솟는 채소 가격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품목별로 전년과 비교해 많게는 두 배 이상 뛴 상황에서 곧 있을 대규모 출하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눈, 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었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데다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6448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8.9% 높았다.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며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5950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15.2% 비싼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 작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노지 양배추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보다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529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6% 높았으나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이달 상순 4671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상순 가격도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0.4% 비싸다.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에도 김치 업체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 물량은 많지 않아 이달 하순까지는 1년 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무 가격 역시 품질 저하와 재배 면적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동월보다 4.2% 올랐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 전북 고창 등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당근은 저장량이 크게 줄었고 봄 당근 재배 면적도 작년보다 2% 감소한 데다,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지난달 가격이 작년 동월보다 25.3% 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 당근이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파 역시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시가 지연되며 지난달 가격이 작년 동월보다 17.6%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늘의 경우에도 2023년산 마늘 재고가 많아 지난달 하순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8% 낮은 상황이지만, 올해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 비율이 높아진 만큼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 뒤 대파대(ha당 154만원), 농약대(ha당 249만원), 생계비(농가당 104만원)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달 초 내린 비로 마늘, 양파 등 농산물 재배지에 침수 피해가 보고된 상황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늘의 경우 전체 면적의 0.1%, 양파는 0.02% 정도가 각각 침수 피해를 봤는데 침수 뒤 병해충이 많아지는 만큼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생육 기간이 40일 안팎으로 짧은 상추, 깻잎은 3월 중순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85%, 48% 비쌌으나 점차 하락해 이달 상순에는 평년 대비 각각 22%, 18% 낮은 수준이 됐다.

박 정책관은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 무, 대파 등 채소류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봄철 생육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4만t, 양배추 6000t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의 경우 국내에서 연간 19만t이 소비된다. 이 중 중국산, 베트남산 등 수입산이 53%를 차지하고 수입산은 대부분 외식업체에서 활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인 당근 4만t은 외식업체용으로 쓰인다.

농식품부는 노지 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노지채소 생육점검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약제를 할인 공급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여름 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의 채소는 이달과 다음 달 비축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격 1억8000만원…삼성전자, 114인치 초프리미엄 TV 공개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현대 판교점에서 국내 최대 크기의 114형 마이크로 LED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크기인 114형 마이크로 LED를 선보이며 초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에 따라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89형·101형에 이어 114형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114형 마이크로 LED의 출고가는 1억8천만원이며, 삼성스토어 현대 판교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114형 마이크로 LED 구매 고객에게 85형 네오(Neo) QLED 8K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진선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마이크로 LED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TV의 장점만을 갖춘 궁극의 디스플레이"라며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초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金값된 김값'…월평균 도매가 80% 치솟아 1만원 첫 돌파

수출 증가에 재고량 크게 줄어
지난달 수출 1억달러 47% 늘어

마른김 도매가격이 1년 만에 80% 치솟아 월평균 1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603원)보다 80.1% 상승했다.

김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것은 김 수출 수요가 늘고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밥용 김 월간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만 해도 5000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2월 5000원을 돌파했고 작년 9월 6000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도 1월 6649원에서 3월 9893원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4월에 역대 최초로 1만원 벽마저 깼다.

이달에도 김 도매가격은 지난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센터는 김 도매가격이 올해 12월까지는 1만~1만1000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른김 원료인 물김의 산지 위판가격은 지난달 평균 kg당 2362원으로 1년 전(980원)보다 141% 증가했다.

김 재고량은 지난달 기준 4900만 속으로 1년 전보다 25% 적은 수준이고 평년보다는 37% 적다.

올해 들어 김 가격은 급등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2024년산 김 생산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억4940만 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증가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김 생산이 끝났고 이달에는 완도와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수출량은 1007만 속으로 전달보다 3.1% 늘었고, 작년보다 2.5% 많았다.

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으로 수출된 물량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중국 물량은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태국 수출량이 392만 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26만 속), 미국(121만 속), 러시아(121만 속) 순이었다.

지난달 김 수출 금액은 수출 단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47% 늘어난 1억117만 달러(약 1500억원)였다.

제품 종류별 지난달 수출량을 보면 마른김은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675만 속이었고 조미김은 330만 속으로 10% 많았다.

마른김 수출단가는 작년 대비 72%나 상승한 속당 7.0달러였으며 조미김 수출단가는 16.2달러로 19%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연금 광주본부 광주여상 찾아 연금 교육·취업멘토링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7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지난해 광주여상을 졸업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무 중인 직원 6명도 함께 참석해, 후배들과 취업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현재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먼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국민연금을 내게 될 학생들에게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특강을 펼쳤다.

또 광주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선물하세요' 캠페인을 소개하며,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취업 설명회와 졸업생 선배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취업 노하우와 직장생활 소감, 사회생활 노하우 등 평소 궁금해하던 취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중선 본부장은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오늘의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역 주민들이 최고로 만족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광산구에 농산물 꾸러미 기탁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3일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광주본부와 광산구청을 찾아 '사랑의 우리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이현호 본부장, NH농협은행 박내춘 본부장, 한제규 본부장, NH농협은행 이경진 광산지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채소류, 장류 등 13가지 우리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400상자를 광산구청에 전달해 관내 복지시설과 21개동 돌봄이웃 가정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한제규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광주본부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식재료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노사상생 '사랑의 쌀' 기부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7일 전남농협노조와 목포시 하당노인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쌀' (10㎏·100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박종탁 본부장과 차상훈 노조위원장, 김형근 하당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농협 전남본부가 후원하고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노사가 상생의 뜻을 모아 지역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쌀 80포는 복지관 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20포는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로 제공될 예정이다.

차상훈 위원장은 "전남농협노조는 지역사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에 농협전남본부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박종탁 본부장은 "농협 내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상호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말정산 깜박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34.36 (+57.73)
↑	코스닥	871.26 (+5.67)
↓	금리 (국고채 3년)	3.448 (-0.052)
↓	환율 (USD)	1360.10 (-2.70)